

# “노동계, 주52시간 제외조항 오해… 불합리 규제 고치자는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반도체 주52시간제 제외 토론

이재명 대표 “쌍방 오해 풀어야”  
반도체특별법 통과 의지 드러내

‘찬성’ 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기술 추월 땐 제조경쟁력 하락”

‘반대’ 화성식품노조 김영문  
“근로시간, 경쟁력 약화 근거없나”

글로벌 반도체 경쟁 심화와 중국 AI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AI 모델이 던진 충격으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좌장을 맡아 반도체 R&D(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제외 조항의 반도체 특별법 삽입 여부를 놓고 팽팽한 찬반 토론을 벌였다.

앞서, 제22대 국회가 출범하자 여야 가리지 않고 반도체 인프라 지원 등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했다. 여야가 합의하면 2월 임시국회에서라도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핵심 쟁점은 반도체 기업의 핵심 자산인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근로기준법(근기법)에 명시된 ‘주52시간제’ 적용의 제외 여부다.

민주당은 특정 산업의 특정 인력을 위해 근로기준법의 예외를 허용하는 조항을 허용하면 안된다는 입장이었으나,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토론회의의 안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를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디베이트 3에서 토론회 개최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로 오르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디베이트에서 찬성 측 주장과 반대 측 주장을 최대한 좁혀보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 문제는 쌍방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노동계에 선 법 개정을 통해 (사측이) 장시간 노동 시켜서 이에 따른 이득을 취하려고 노동자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닐까라고 오해를 한다”며 “경영계 측에선 충분히 대가를 지급할 것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이지, 부당한 이익을 취하겠다는 것은 (노동계의) 오해이고 우리만 형식적인 규제 때문에 (개발을) 못 하고 있어서 불합리한 점을 고쳐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정리했다.

민주당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포함해 이른바 ‘칩스3법’을 대표 발의한 김태년 의원은 법안 설명을 하면서 꼬리가 뭉뚱을 흔들고 있다는 취지로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 들어 1호 법안으로 칩스3법을 만들고 발의하면서 기업, 협회, 학계,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했고 가급적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며 “주52시간 적용 제외는 전혀 요구된 사안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보도 되더니 쟁점으로 등장해서 인프라 구축, 세제 지원, 산은법 개정이 뒤로 밀리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표현했다.

이후 토론에선 찬반 패널의 치열한 토론이 이어졌다. 찬성 측의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반도체 연구·개발을 할 때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 정해진 시간을 채우면 퇴근하기 때문”이라며 “엔지니어들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개발해야 하고 문제 해결에 창의력까지 발휘해야 하는데 시간 기준에선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산과 연구·개발은 특성이 많이 달라서 제도상 구별해야 한다”며 “반

도체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하다. 반도체 기술 개발 안하던 미국이 이제 기술 개발하고 중국은 턱밑까지 왔다. 기술 개발에서 추월당하는 순간 제조시설 경쟁력도 떨어진다”며 악순환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김영문 화성식품노조 SK하이닉스기술사무직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진정 산업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근로 시간이라는 근거가 있다. SK하이닉스는 주 최대 52시간 유연근무제를 하고 있다. 지금하는 체계가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유연근무제 도입 이후 평균 43시간을 일하고 있다. 하이닉스는 HBM(고대역폭메모리) 제품을 통해서 많은 영업이익을 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연간 총 노동 시간을 늘리지 않고 중요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의 고소득의 전문가가 동의할 경우 예외로 그들이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에 왜 반대하냐고 노동계 측에 물었다.

노동법 연구자인 권오성 연세대학교 법학교수는 “기존 제도에서 재량근로제가 있다. 특정 업무에 대해 근로시간을 계산하지 않는 제도로, 현 제도에서 없지 않다”며 “다만, (근기법의) 예외를 풀는 것이 아니라 재량근로제 요건을 확대한다거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조치, 연가 보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과 반대 측 패널이 기존 근기법에 선택적 근로제와 재량근로제 등이 있음에도 주52시간 적용 제외를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묻자 삼성글로벌리서치의 김태정 상무는 “3개월 선택적 근로제를 쓰지 못한다는 것이지,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연장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1개월 단위에서 3개월 단위로 확장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소득 전문직은 기업의 핵심 자산이다. 이들이 이직을 하면 기업의 경쟁력이 무너진다”며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동의가 부담이 되면 신청이라는 방식으로 자율성을 확보할 것이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 강한 건강 보호조치를 세울 것이고 전문가와 함께 과다근로 예방, 휴가 등 휴식권 확보, 건강검진 등의 조치를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 보상 체계도 넓고 획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기업의 경쟁력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반도체특별법 공론화… 업계 ‘통과’ 기대감

정치권·기업·노동계 치열한 공방  
이재명, 찬·반 의견 좁혀볼 것 제안

반도체 업계의 숙원과도 같은 ‘반도체특별법’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그동안 연구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노동 시간 제한을 예외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면서 정치권과 노동계의 갈등을 빚었다. 그러나 최근 국가적 AI 역량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인프라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반도체특별법이 덩달아 힘을 얻고 있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어떻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제로 열렸다. 차기 대선 후보 중 가장 압도적인 지지율을 확보한 이 대표가 주최한 만큼 업계에서는 정치권이 반도체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실제로 이날 토론회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이철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반도체 산업의 중점 육성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 여기에는 신기술 연구개발 분야를 노사합의를 전제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은 기존 노동법에 예외를 둔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물론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노동계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며 여야정 국정협의체 실무 협상 테이블에 올랐으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반도체 산업 중사 연구직의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주

장하나, 민주당에서는 수용 불가를 내걸었다.

이 대표가 직접 주최한 반도체특별법 토론회가 노동시간을 중점으로 다루면서 업계에서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토론회에서 이 대표는 찬성 측 주장과 반대 측 주장을 모두 경청하고 좁혀볼 것을 제안했다.

업계에서는 반도체특별법의 노동시간이 쟁점이 된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꾀하는 만큼, 법안 처리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 대표의 적극적인 이번 토론회 개최는 민주당 당론 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라며 “반도체특별법은 노동시간 유연화 말고도 인프라구축과 세제 지원 등에서 반도체 기업이 꼭 필요한 것들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서현 기자 seoh@

## 오픈AI 알트먼, 카카오 정신아 만난다

알트먼 오픈AI CEO, 오늘 방한  
비공개 개발자 행사 ‘빌더 랩’ 참석  
이후 카카오 기자간담회 참석 예정

알트먼 오픈AI CEO(사진)가 4일 하루 방한한다. 지난해 1월 방한 후 1년만이다. 이번 방한에서 알트먼이 카카오 기자간담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IT업계는 오픈AI의 카카오와의 협업과 한국지사 설립 가능성을 조심스레 점치고 있다.

알트먼 CEO는 4일 서울에서 비공개로 열리는 개발자 행사 ‘빌더 랩(BuilderLab)’에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오픈AI 개발자들이 직접 기술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개최 장소 등 구체적인 사안은 비공개다. 알트먼은 빌더 랩에 참석한 후 카카오 기자간담회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알트먼은 카카오 기자간담회 전후로 정신아 카카오 대표와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오픈AI와 카카오의 협업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해 회사 AI 사업 방향을 발표한 뒤 올해 중 새로운 AI 서비스 카나나(Kanana)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AI 어시스턴트인 카나나는 현재 카카오 내 일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베타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IT업계에서는 카나나가 챗GPT를 바탕으로 출시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카카오가 모델 오케스트레이션(Model Orchestration) 전략을 취하



고 있었던 만큼 챗GPT를 인식하는 것 또한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다.

정 대표 외에도 알트먼이 다른 인사를 만날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AI 개발에 필수적인 AI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HBM을 납품하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SK그룹 최태원 회장 등이 가장 유력한 만남 상대다.

지난해 4월 아시아 최초로 일본 도쿄에 오픈AI가 지사를 내고 이후 싱가포르에 아시아태평양 지사를 추가한 만큼 한국지사 설립 가능성도 초미의 관심사다. 오픈AI는 지난 4월 아시아 최초로 일본 도쿄에 일본 지사를 설립했다. 이후 싱가포르에 아시아태평양 지사를 설립했다.

AI 데이터센터 설립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앞서 진행했던 KDB산업은행과의 업무협약(MOU) 체결 때문으로, 오픈AI와 산업은행은 MOU를 통해 오픈AI가 국내 데이터센터 임차 공간을 확보하는 데 산업은행이 협력하기로 했다.

알트먼은 서울에 1박2일 머물 예정이다. 3일 일본 도쿄에서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만난 후 서울로 이동할 예정이다. 서울에서 일정을 마친 후에는 6일 인도 뉴델리, 7일 독일 베를린, 10일 프랑스 ‘AI 행동 정상회의’ 등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서현 기자

## 에코프로비엠·리가켄바이오 등 급락

» 1면 ‘딥시크·트럼프 관세…’서 계속

개인은 2950억원을 순매수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인 각각 1909억원, 1004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 가운데 레인

보우로보틱스(3.34%)만 유일하게 상승했다. 에코프로비엠(-9.16%), 리가켄바이오(-8.14%), 삼천당제약(-7.17%), 알테오젠(-5.11%) 등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

스피는 관세 전쟁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외국인 자금이 이탈했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대부분 업종이 하락을 맞이했다”라며 “트럼프 리스크가 재부각되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 우려에 2차전지가 급락했으며 대중 반도체 수출 제재 우려에 반도체도 약세를 보였다”라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